

滿洲벌과 桂林에 가다.

Chinese Travels

ARCHITECTURE TRAVEL

金有奉 / 삼정 건축사사무소
by Kim, Yu - Bong

신흥 상공업도시 천진(天津)

십여년전만해도 철의 장막이라하여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졌던 中國 땅, 첫 기착지인 천진(天津)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간단히 받고, 냉방시설이 안된 공항터미널을 빠져나와 버스로 북경으로 향하였다.

천진의 역사는 비교적 짧았다.

南京에서 北京으로 천도했던 명조는 강남으로부터의 식량을 북경으로 운반하는 수도의 중계기지로 이곳을 건설했다고 한다.

천진이 상공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北京條約에 의해 부득이 개항을 하고 대외 무역항의 하나가 된 후부터라고 한다. 新興 상공업도시 천진에는 中國의 다른 도시에 있는 역사적인 명소가 드물기 때문에 천진 관광코스는 예정에 없었다.

천진, 北京간은 1백 60 킬로미터 중국의 첫인상은 끝이 안보일 정도로 펼쳐지는 넓은 평야, 고속도로의 차량소통은 한산했고 가끔 보이는 주택들, 벽체는 흙벽돌, 지붕은 기와에 획일적인 모습이 전형적인 중국의 농촌 풍경이었다. 북경에 도착하여 간단히 식사하고 심양(瀋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중국 국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백두산으로 가기 위하여 심양에서 연길(延吉)행 비행기 탑승 때문이었다. 북경 공항은 증축공사 하느라 꽤 복잡하였고 국제공항으로서의 시설과 서비스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밤 여덟시에 출발한다는 비행기는 두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비가 많이 내리셔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정이 가까와서야 내일아침 출발예정이라고 하였다. 여행가방은 돌려 주지않아 세면도구도 챙기지 못한채 중국 항공사가 제공한 버스로 번두리 호텔에서 예정에 없던 허룽밤을 보냈다.

저무는 석양의 도시 심양(瀋陽)

다음날 中國 요녕성(遼寧省)의 성도 심양에 도착했다.

동북부 지방의 제일가는 공업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옛 봉천(奉天), 심양이라는 말은 “저무는 석양의 아름다운 도시”라고 한다.

상해, 북경, 천진 다음으로 중국에서 네번째로 큰 심양은 예로부터 만주의 중심이자 청조(淸祖)의 발상지로 작은 북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심양시의 스카이라인은 러시아풍 건물에다 일본식 건축양식, 중국 淸나라의 건축양식이 섞여 마치 국제건축 양식의 집합소라는 느낌을 주었다.

시내 중심도로 중앙에는 도로의 삼분의 일 정도의 폭에 공원을 만들고 양쪽 도로의 한편은 일본, 다른편은 러시아 도로로 구분되어 이용했다고 한다.



지금도 도로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04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일본의 만주 진출근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과거의 심양이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심양에서는 각국 외교관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안내원은 북경이 외교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자랑하고, 북한의 평양행 직통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 김일성이 중국 고위급과의 회담장소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하였다.

오후 6시 심양 공항에서 연길행 35인승 쌍발기에 탑승하였다.

교통의 불편함과 낡은 기내에 냉방이 안되고 요란한 소리에 피곤했지만,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 볼려고 해도 불안한 마음때문에 한시간이 지루하기만 했다.

조선족 자치주 연길(延吉)

저녁 여덟시 연길공항에 도착하고서야 연길공항은 작은 비행기만이 이착륙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여름이지만 초가를 날씨같이 쌀쌀하였다. 중국은 30개 성(道), 현(市,郡), 향(邑,面)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져 있고 한민족은 1백 90만명 정도라고 한다.

東北 3성은 만주벌에 있는 곳으로 길림성(吉林省), 요녕성(遼寧省), 흑룡강성이다. 길림성에 속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정부는 연길시와 용정(龍井), 도문시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고 주장은 조선족 출신이라야 한다고 하였다.

저녁에 연변대학 교수택 초청을 받아서 개인생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물론 부부가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중류층 이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과는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의 모든 공동 주택은 층수, 면적에 관계없이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었다. 현관입구에 가족들이 손전등을 들고 나와 5층까지 올라 가는데 계단바닥은 콘크리트 타설 후 그대로 있고, 벽체는 몰탈 초벌 마감을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은 도장마감이나 전등시설은 안한다고 한다.

부인이 몇년전에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보고 와서 부엌과 화장실을 자신이 직접 수세식으로 개조했다고 자랑하지만, 비록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의식에 대한 무관심, 게으름, 소박함은 중국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우리민족의 靈山 백두산 천지를 가다.

백두산을 등정하기 위하여 호텔에서 일찍부터 서둘렀다.

연길에서 남쪽으로 포장된 도로로 한시간 정도 가면 버스 차창밖으로 보이는 "일송정"에서 이제는 선구자가 말타고 달리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고 봉우리는 중계탑이 서 있는 제주 금악봉과 비슷하였다.

연길 원림차가 개설한 비포장도로에 들어서면서 다섯 시간만에 장백산(長白山)입구에 도착하였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르고 있다.

입구에서도 백두산천지는 보이지 않았고 버스로 30분 정도 다시 가면서 주위에는 하늘로 곧게 뻗은 원시림만이 보일뿐이었다. 천지가 보이는 주차장에 도착했을때 지프차와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특수엔진으로 장치된 봉고차와 지프차로 포장된 가파른 산등성을 10분정도 달려서 바로 천지 앞 평지에 도착하였다.

볼품없는 석분으로 이루어진 언덕에 몇 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니 온몸이 떨려가는 듯한 느낌과 꿈속에서라도 가보고 싶어하던 천지의 맑은 물이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보였다. 몇 천 년의 역사와 극난에도 변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근원이요, 우리 민족의 限이서던 靈山 백두산, 우리에게는 꿈에 그리는 환상일 수밖에 없었다. 약간의 몽계 구름만이 정상 밑으로 오락가락할 정도로 날씨가 무척 좋았고 열 번 등정하면 두 번 정도 이런 모습의 천지를 구경할 정도라고 한다.

南美의 이과수폭포가 동적이라면 천지는 정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런지 모르지만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불행하게도 남쪽은 북한, 북쪽은 중국, 반으로 나누어진 천지...

누가 언제 내나라 조국땅을 두갈래로 갈라놓았는지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최고 높이 2천 7백 44미터, 최고수심 4백미터, 둘레 15킬로미터, 저수량 약 20억입방미터, 동서 최대길이 3.6킬로미터, 남북 최대길이 4.6 킬로미터 백두산천지는 한라산 백록담의 40배 정도라면 어느정도 크기는 짐작이 갈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리랑"을 합창한 우리 일행은 위험표시와 보호망이 없는 짧은거리의 구간에서 기념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천지의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땅속에서 솟는 물로써 가물에도 폭우가 내려도 항상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① 연길의 노점상
② 우리민족의 靈山 백두산 천지에서

중국 정부는 86년에 백두산을 외국인에게 개방한 뒤 90년 북경(베이징)아시아 경기대회를 계기로 집중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백두산 개발은 다분히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백두산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천지 주변의 툰드라 지대는 화산암이 붕괴한 불안정한 지반위에 키작은 관목들과 고산초본 식물이 자라는 희귀식생태로 한 번 파괴되면 자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모두 2천 4백 여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백두산은 중국정부가 지난 60년 “장백산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80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호지역”으로 설정해 놓았다고 한다.

하산하여 다시 장백폭포로 가는 길목에는 온도 80℃가 넘는 온천수가 자욱한 안개를 이루며 길가로 흘러내려오고 계란을 즉석에서 온천물에 삶아서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었다. 옆에는 장백폭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돌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어디로 흐르는지 조용하게 흐르는 온천수와 대조를 이루었다. 1킬로미터 더가면 장백폭포가 높이 68미터에서 떨어지면서 주위에 병풍을 둘러놓은 것과 같은 기암절벽과 잘 조화되어 장관을 이루었다.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을 남긴 채 장백산 입구에 있는 천지호텔로 돌아왔다.

독립투사의 고장 용정(龍井)

다음 날 정오 용정에 도착하여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龍井중학교에 들렀다. 여름방학 때라 조용하고 낡은 학교건물은 쓸쓸하게만 보였고 일제탄압에 저항하다 스물여덟의 젊은 나이에 옥사한 윤동주시인의 비문이 보였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를 남긴 저항시인 윤동주가 바로 용정중학교 출신이다. 해방전까지 모두 5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용정중학교는 남과북 그리고 중국에서 각기 이름을 날리는 유명인사들과 술한 항일투사 독립투사를 배출했지만 尹東主 詩人 은

문학방면의 가장 독보적인 인사라고 말하고 있다. 용정중학교는 해방 이전의 대성, 은진, 광명, 동흥 등 여섯개의 남녀중학교를 연합해 다시 출발한 조선족학교인데 현재 30학급에 1천 7백여명의 중고 학생이 다니고 있다고 한다.

여러차례 경비를 들여 윤동주시인의 묘소를 복원하고 학생들이 수시로 별초하는등 주변을 가꾸고 학생역사 전시관에는 그에 관한 사료를 소개하고 있어 최근에는 延邊에 오는 한국관광객들이 대부분 윤동주묘소를 참배한다고 한다.

역사의 悲戀地 도문(圖門)

연길에서 버스로 두시간 조금 안걸리는 거리의 도문(圖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차량과 사람들이 드나드는 철교는 반은 중국, 반은 북한으로 중국측 철교에는 적색이 칠해져 있고, 북한측 철교는 청색으로 칠해져 철교의 반은 중국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두만강 푸른물결에 노젓는 뱃사공...” 두만강에 대한 기억은 노래가사처럼 푸른물에 정서가 깃든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다.

북한은 두만강 상류쪽에서 금광을 개발하면서부터 강물은 오염이 되었고 중국과 북한의 양 강쪽에서 북한쪽으로만 강물이 흐르고 있어 도문에서의 두만강은 초라하고 실망이 컸다.

한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갈라놓는 38선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느낌과는 달랐다. 약2백미터정도 떨어진 거리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한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人民幣 1원을 주고 망원경을 빌려 북한의 건물을 보았다. 아파트에는 사람이 보였으며 38선에서 보이는 아파트처럼 형식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젊은 여자는 초라한 상품을 전시해 놓고 북한사투리로 “여기서는 남북한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할때는 우리의 마음은 묘한 심정이 교차되었다. 그 여자 할아버지시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정착한 곳이 지금 우리동포들이 살고있는 연변이라고 한다. 이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동포들은 동포의 정을 기대해보지만 오히려 서러움을 달래야 하는 현실이어서 가슴아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천하제일의 山水를 자랑하는 계림(桂林)

계림의 산수는 천하의 제일이라고 한다. 3억6천년 전 바다였다가 지각의 변동으로 석회암 봉우리가 솟아난 당초 평균 높이 해발 1천미터였으나 풍화작용으로 현재는 평균높이 2백77미터에 불과하다고 한다.

십만개 이상의 봉우리는 금강산의 산맥으로 이루어진 1만2천봉보다 많아 지형의 특유한 독립된 봉우리가 솟아있는 재미있는 도시이다.

山水가 유명하고 계수나무가 울창하여 계림이라 부르게 되었고 시내 가로수 역시 계수나무와 대나무로 이루어졌다. 일년 평균기온은 19℃, 추운 겨울날씨에는 평균 3~5℃로 계수나무가 자라는데

④ 계림의 리강 풍경

적당한 기온이라고 한다.

1941년 일본군의 폭격을 받아 도시의 3분의2가 소실되어 현재의 市街는 비교적 새롭다. 중국에서도 국민소득이 제일 높고 건축물 높이도 5층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대만인들과 일본인들과의 관광합작투자가 많다고 한다.

계림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해발 2천 6백40미터인 모야산(일명 고양어산)이며 시내에 있는 상비산(코끼리산)은 리강에서 도화강(桃花江)에 흘러드는 곳에 있는데 코끼리가 도화강에 물을 마시려고 하고있는 형상을 하고있는 바위이다. 복파산(伏波山 : 장수산이라고함)은 산중턱에는 공원으로 되어있어 3백10계단을 올라가면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칠성공원(七星公園)은 복두칠성과 같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공원안에는 월아산(月牙山), 칠성암(七星岩), 낙타산(駱駝山) 등의 바위산과 같이있으며 계수나무와 대나무가 제일 울창한 곳이다.

광명산 밑에 있는 노적암 동굴은 길이 2킬로미터, 최고높이 18미터, 넓이 93미터로 광복하던 해에 동굴을 발견했다해서 광명산이라 부르고 있으며, 1962년부터 개방하였다고 하는데 계림최대의 중요동굴인 노적암의 기경(奇景)은 불만하다. 계림시에서 버스로 30분 하류쪽인 죽강(竹江)까지 와서 유람선을 타고 하는 리강관광코스는 중국여행에서 제일 기억에 남을 것이다. 양삭

(陽朔)까지는 다섯시간 배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이곳은 마치 자신이 산수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강물에는 물소와 물고기를 잡아서 주인에게 가져다준다는 물새(현지에서는 매라고 부르고 있음), 물소와 돼지먹이로 강물속에서 수채를 캐는 농부들, 대나무로 나룻배를 만들어 고기를 잡는 강태공들, 목선위에 돼지우리를 만들어 기르는 모습은 리강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이다.

열흘간의 여행 속에서 리강의 산수를 보고 자원의 섭리를 망연히 바라보고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기억도 함께 되살아난다. 중국의 광활한 국토에 기죽었던 우리가 천진에 도착하여 볼품없는 시기와 후줄근한 모습의 중국인들을 보면서부터는 새로운 활기에 차 올랐다. 큰 것에 대한 시대적 경탄과 기죽음, 우리보다 잘살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우쭐함과 경멸감이 반작용을 일으켰던 기억은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 체험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중국에 대해 지나친 열등감과 과장된 우월감이 교차하고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조잡한 상품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60년대의 생활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생활상, 진보를 서두르지도 않고 급속한 상업화를 꿈꾸지도 않는 그들, 그러면서도 아시아대륙의 거대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들은 가슴속에 어떤 생각들을 묻고 있는 것일까?

發刊案内

(社)大韓建設振興會 刊

1993 建設 工事 표준품셈



土木・建築・機械設備 및 電氣・通信工事費 算出의 基準書

土木, 建築, 機械設備篇의 內容을 政府 公布 原文의 順序와 갈게 새롭게 再構成하였으며 電氣・通信篇은 屋內工事는 全文, 屋外工事는 共同住宅團地 및 大型빌딩에 必要한 품을 발췌수록 하는 것으로 大幅 補完하였습니다.

본 標準품셈은 利用하는 實務技術者의 理解를 돕기 위해 註解, 例題, 計算例를 毎年 補完하고 있으며 建設工事が 앞으로 大型化, 機械化, 專門化, 複雜化 되어 多樣한 工法이 要求됨에 따라 政府품셈에서 未解決된 품을 參考提案(參考資料)으로 수록, 新工法을 適用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고 있습니다.

體裁를 刷新했습니다.

● 質疑應答은 政府의 有權解釋을 土台로 한 內容을 수록함으로써 結果에 대하여 公信用을 附與하였으며 當會 解說 編纂分은 [註解], [例題], [參考提案], [計算例], [質疑應答],

參考, 등의 기호를 使用하여 原文과의 區分을 明確히 하였습니다.

● 政府의 公布原文(큰글씨)과 當會의 편찬內容(작은글씨)과의 區分을 明確히 하기 위해 活字의 크기를 달리하였습니다.

● 使用者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해 種目數가 複雜한 諸表는 유사種目 群으로 線을 그어 一目 요연하게 했습니다.

● 高級用紙를 使用하여 많은 內容(1,600페이지 가량)을 수록하면서도 책의 부피가 작아 現場휴대 使用에 簡便도록 하였습니다.

精誠을 다해 編纂했습니다.

● 當會는 工事費 積算基準 施策의 主務官署인 建設部의 支援를 받아 바로고 正確한 內容의 品셈을 發行, 普及하는데 使命을 다하고 있습니다.

● 當會의 品셈編纂委員會는 多年間 政府品셈을 直接 다루거나 設計 및 施工 監理에 豊富한 經驗을 쌓은 技術陣(前・現職 公務員과 公共機關의 實務責任者)들로 構成되어 있으며 精誠을 다하여 責任執筆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 組版으로 活字가 미려하고 印刷가 鮮明하며 視覺的인 여유를 주는 일러스트와 貼付用 건축지 등 實務擔當 技術者의 便宜를 勘案한 品셈의 決定版 임을 자부합니다.

注文申請 接受中

申請 및 問議連絡

(社)大韓建設振興會 月刊 國土建設 管理部
TEL : 555-0816, 557-7370, 562-2842
567-6255
FAX : 557-7370 값 22,000원